



제부도 아트파크



## 하루 두 번 바닷물이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제부도 명소 5

### 제부도

서신면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일명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신비의 섬 제부도는 썰물 때면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섬을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고 교통이 편리해 가족 단위의 1박 2일 휴양 여행지로 적합하며 물에 비친 낙조는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17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아트파크'와 해안 산책로의 '경관 벤치'가 각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는 등 디자인과 건축, 예술 등이 어우러진 '문화 예술의 섬'으로 거듭난 제부도는 2017년 경기 유망관광 10선에 최종 선정됐으며 연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 제부도 워터 워크(Water walk)

제부도 바다열림길 입구(구 제부도 매표소 자리)에 자리 잡은 다목적 조망시설이다.

제부도 바다열림길 열리고 닫히는 모습과 드넓은 갯벌 위에서 펼쳐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 제비 꼬리길

2017년 8월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선정된 제부도 제비 꼬리 길은 빨간등대에서 해안 데크와 탐재산의 능선을 따라 걷는 길로 탐재산 정상에 오르면 서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탐재산에 연접한 해안산책로는 2016년부터 진행된 '제부도 문화예술섬 프로젝트'의 결과로 꽃게, 갯갈매기, 바지락 등 바닷가 생물을 주제로



제부도 워터워크(Water walk)



제부도 해수욕장



제비 꼬리길

아기자기한 설치물들이 가득해 가족, 친구 또는 연인들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히 걸거나 사진 촬영을 하기에 최적이다.

### 제부도 해수욕장

길이 1.8km의 백사장 오른쪽으로 탐재산이 자리하고, 왼쪽으로는 매바위가 자리 잡고 있어 해가 떨어질 때면 장관을 연출한다. 바지락 캐기, 갯벌 생태체험, 망둥어 낚시와 배낚시, 그물체험이 연중 가능하고 여름철에는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하다. 수온이 적당하고 경사도도 완만해 여름 한낮에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석

양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면 그 어떤 곳보다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 제부도 아트파크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예술공간으로, 특히 제부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2017년 8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공간으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중 대상', '경기 유망관광 10선'에 선정됐다. ❶